

조선시대 강화도 馬牧場의 置廢와 戰馬의 生産

이 홍 두*

1. 머리말
2. 강화도 본섬의 마목장 설치와 徙民·築牆論議
3. 강화도 부속섬의 마목장 설치와 胡馬 生産
4.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와 戰馬 生産의 감축
5. 맺음말

1. 머리말

전쟁에 기마전을 도입하면서 전마(戰馬)가 중요하게 되자, 국가는 전마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 마목장을 설치하였다. 원나라는 고려 원종 14년(1273) 제주도를 속령으로 만들고, 충렬왕 2년(1276)부터는 몽고식 목장을 설치하여 호마(胡馬)를 방목하였다.¹⁾ 그런데 원·명왕조 교체가 이루어진 직후에 명나라가 제주도 마목장을 소유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조선의 전마 생산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태종은 제주말을

* 홍익대학교 교수

1) 南都泳,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1996, 368쪽.

가까운 진도에 분산시키는 한편으로 전마의 수송이 용이한 강화도에 길상목장(吉祥牧場)을 설치하고, 제주목장의 종마 100필을 방목함으로써 강화도 전 섬의 목장화를 추진하였다.

세종은 태종의 정책을 계승하여 동왕 7년(1425)에 말 1만 필을 방목할 수 있는 진강목장(鎭江牧場)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동왕 9년(1427)에는 길상목장과 진강목장을 합쳐 담장을 쌓았다. 그러나 세종이 추진한 전 섬의 목장화 정책이 관료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마목장을 강화도 부속섬에 설치하게 되었다. 세조는 동왕 2년(1456)에 길상목장·진강목장·중목장(中場)을 하나로 통합하여 마목장 운영체계를 크게 발전시켰다. 한편 강화도 마목장의 설치에 일반 백성들의 토지를 축소하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평지에서 적의 주력부대와 대치할 때 경기병은 기동력을 이용해 적의 대오를 분산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중장기병은 적진으로 돌격하여 적의 대오를 격파하였다. 이때 말과 기사에 장착되는 장비가 상당한 무게였으므로 여기에 적합한 마종(馬種)은 중형의 말이나 중형 이상의 대형 말이었다. 한국의 토종 말인 과하마(果下馬)는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중장기병의 장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중장기병을 운영하려면 체구가 큰 호마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조선시대 이후 중형 이상의 전마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국가는 전마를 확보하는 일을 군국의 중대한 일로 여겨 그 조달에 힘썼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 전마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국방력이 약화된 결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크게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조선시대 마목장 연구는 주로 한국의 재래마와 한국의 마정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검토되었으며,²⁾ 조선시대 강화도 마목장 연구도

2) 森爲三, 「朝鮮馬の系統」, 『日本畜産學會報』 4, 1926; 南都泳, 「麗末鮮初 馬政上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였다.³⁾ 따라서 강화도 마목장의 치폐문제와 그곳에서 생산되는 말의 품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서역마의 보급과 호마의 수용사례를 염두에 두고, 조선시대 강화도 마목장의 치폐 문제를 검토한다면, 그에 대한 연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호마의 보급 문제는 조선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마종과도 무관치 않다.

여기서는 먼저 강화도 마목장의 설치의 시점을 밝히고, 강화도 전 섬의 목장화 정책을 사민론(徙民論) 및 축장론(築墻論)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강화도 부속섬의 마목장 설치와 호마 생산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 문제를 전마의 생산 감축과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강화도 본섬의 마목장 설치와 徙民·築墻論議

태종은 제주목장에 대한 명나라의 끊임없는 간섭과 제주 마필의 운송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강화도 전 섬의 목장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세종은 태종의 전 섬의 목장화 정책을 계승했는데, 목장 내의

본 對明關係, 『東國史學』 6, 1960; 南都泳, 「朝鮮牧子考」, 『東國史學』 8, 1965; 姜冕熙, 「韓國在來馬의 系統에 關한 研究」, 『한국축산학회지』 7-1, 1965;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中央公論社, 1967; 南都泳, 「朝鮮時代 濟州道牧場」, 『韓國史研究』 4, 1969; 黃山貞裕, 「汗血馬と天馬」, 『騎馬の歴史』, 東京, 講談社, 1971; 李基萬, 『馬와 乘馬』, 향문사, 1984; 李始榮, 『韓國馬文化發達史』, 한국마사회, 1991; 南都泳,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1996; 李弘斗, 「고구려 胡馬의 유입과 鐵騎兵」, 『歷史와 實學』 52, 2013.

3) 특히 남도영의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주목된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강화도 마목장에 관한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기본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南都泳, 「목장의 발달」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1996, 359~453쪽. _____, 「朝鮮時代 濟州島牧場」, 『韓國史研究』 4, 1969; _____, 「朝鮮時代 말 需給問題」, 『郷土서울』 53, 1993.

백성을 이주시켜 강화도 전체를 목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 중신들은 세종의 안을 지지하는 사민론과 이에 반대하여 목장에 담을 쌓고 머무르게 하는 축장론으로 나뉘어 6년간 대립하였다. 세종은 사민론이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자, 마목장을 주변의 부속섬에 건설하였다. 세조는 즉위 초부터 마목장 건설에 따른 대립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장을 통합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목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여기서는 태종과 세종이 본섬 전체를 마목장으로 확대하려는 사민론과 목장 확대를 반대하는 축장론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조선정부는 국초부터 명나라의 무리한 전마 요구를 주로 제주목장을 통해 공급했다.⁴⁾ 그런데 태종 13년(1413) 7월 북경에서 돌아온 사신이 “제주의 마필은 원나라의 소유이므로 중국으로 옮기려 한다”는 명나라 조정의 계획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⁵⁾ 태종은 제주말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세웠다. 먼저 가까운 진도에 제주말을 옮기고, 다음으로 유사시에 수송이 편리한 강화도에 제주말을 옮기는 것이었다.

태종은 호조참의 김정준(金廷僑)을 제주에 보내 양마(良馬) 1백 여 필을 추쇄한 다음,⁶⁾ 그 말들을 사복시(司僕寺)의 건의에 따라 강화도 길상산에 방목하였다. 이때 말 10필을 한 둔(屯)으로 삼아 목자 두 명을 배정하고 주위에 담장을 둘러 말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했다.⁷⁾ 강화도 마목장을 건설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동왕 15년(1415) 1월 21일, 둘레 6만 7천1백43척의 새로운 길상목장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마목장의 건설공사는 작업에 참여하는 목자들이 한 번 목자의 신분으로 정해지면, 종신토록 천역을 면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40여 호가 이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호조판서 박신(朴信)이 목장 부근의 백성들을 천역의 목자로 정하지 말고, 선군(船軍)처럼 양인의

4) 남도영, 앞의 책, 429쪽.

5) 『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7月 18日(乙未).

6) 『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7月 16日(癸巳).

7) 『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8月 23日(己巳).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무토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⁸⁾ 그러나 태종은 목자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강화도민 전부를 이주시켜 섬 전체를 목장으로 할 속셈이었다. 다음의 사료에서 그것을 뚜렷이 엿볼 수가 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강화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사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찍이 제주의 말을 용매도로 옮겨다 키웠는데, 그 말이 제주의 말보다 나았다. 용매도는 땅에 돌과 자갈이 많아 척박하였지만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더욱이 강화는 땅이 기름지고 풀이 풍부한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 강화의 땅으로 모두 목장을 만들 수 있다면 제주보다 나을 것이다. 제주는 중국에서 자주 지칭하지만, 그러나 바다길이 험하여 왕래할 때에 사람이 많이 빠져 죽으니, 갑자기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용하게 되지 못하면, 어찌 한갓 제주만 바라고 있겠는가? 마땅히 강화부로 이문하여 이사하는 백성들의 전답을 백성들이 더 점유하지 못하게 하여, 황야가 되도록 버려두어 강화도 전체를 목장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쓰고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⁹⁾

위 사료에서 태종은 강화도에 대규모의 마목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말을 사육하는 입지조건이 제주도보다 좋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제주도 목장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간섭이 부담스러우며, 마지막으로 제주목장의 말을 육지로 반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태종이 호조판서 박신(朴信)에게 말하던 중에 “강화도 전체를 목장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쓰고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고 한 것은 태종이 제주말 전부를 강화도로 옮기려는 의지가

8) 『太宗實錄』卷 29, 太宗 15年 1月 21日(庚申).

9) 『太宗實錄』卷 29, 太宗 15年 1月 21日(庚申) “上曰 卿不識予意, 予欲令江華之民移徙也, 曾移濟州之馬於龍媒島牧養之, 其馬勝於濟州之馬, 龍媒地多石礫薄而猶能如此, 況江華土厚草豐乎, 若以江華之地, 全爲牧場, 則予知不下於濟州矣, 濟州中國屢稱之, 而且海路阻險, 往來之際, 人多溺死, 卒有緩急, 不及於用, 豈可徒仰濟州而不慮乎, 宜移文江華府, 將移徙之民所耕田畝, 毋使民加占, 棄爲荒野, 期至江華之境, 盡爲牧場, 則軍國之馬, 豈不有餘用哉.”

확고했음을 시사한다.

태종은 마정(馬政)을 군국의 중대한 일로 규정하여 동왕 17년(1417)까지 강화도 본섬의 길상목장과 부속섬 매도목장을 운영했지만, 말의 전체 숫자는 피마(雌馬)와 상마(雄馬)를 합해 1천2백여 필에 불과했다. 이에 강화 부사가 감목관(監牧官)을 겸임토록 함으로써 말의 생산을 독려하였다.¹⁰⁾ 그러나 세종 5년(1423) 경기 우도 7개 목장¹¹⁾에서 목축한 자용마의 총 마필수가 1천 6백 42필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5년 전 태종대의 마필수와 비교할 때 거의 증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동왕 7년(1425)에 진강목장 건설을 단행하였다. 마목장 건설은 한성 부윤 김소(金素)와 제주 출신의 대호군 고득종(高得宗)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강화부 경내에서 목장으로 적당한 곳은 남쪽의 진강에서 대청포(大靑浦)까지 1만 1천6백 척(尺)이고, 서쪽으로 건동을포(巾冬乙浦)까지 5천8백 척인데, 그 사이에 목장을 만들면 둘레 60리의 목장이 되므로 1만 마리를 기를 수 있다. 다만 강화도는 겨울에 풀이 마르므로 건초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¹²⁾고 하였다.

세종은 이 문제를 병조에 물었는데, 그 때 병조가 목장에 담을 쌓는 것은 각 고을에 분담시키고, 겨울에 먹일 목초는 각 포구의 영선군(領船軍)이 준비토록 하며, 목장 안에 거주하는 338호는 이주와 정착을 자유롭게 하도록 건의하였다. 세종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공사를 시작하여 둘레 60리 규모, 1만 필의 말을 기를 수 있는 진강목장을 완성하였다.¹³⁾ 그러나 목장 안의 민호는 내년(세종 8년, 1426) 10월까지 이주토록 결정하였다.¹⁴⁾

10) 『太宗實錄』 卷 33, 太宗 17年 6月 4日(戊子).

11) 경기 우도 7개 목장은 임진의 무지목장(無知場), 강화의 진강목장(鎭江場)·북일목장(北一場)·길상목장(吉祥場)·매음도목장(煤音島場)·주문도목장(注文島場)·신도목장(信島場)을 말한다.

12) 『世宗實錄』 卷 30, 世宗 7年 11月 8日(癸卯).

13) 앞의 주와 같음.

14) 『世宗實錄』 卷 30, 世宗 7年 11月 16日(辛亥).

세종은 동왕 9년(1427)에 길상목장과 진강목장을 합쳐서 담을 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세종은 판서 성달생(成達生), 상호군 고득중, 소윤 조혜(趙惠)가 강화부를 살피고 돌아와서 올린 보고에 따라 두 목장 근처의 선군을 6월~8월까지 사역시켜 둘레 1만 5천 6백 척의 목장을 건설하여 말을 방목하였다.¹⁵⁾ 그러나 목장 내에 백성들이 여전히 경작을 계속하고, 겨울용 건초가 부족한 관계로 말을 자유롭게 방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종은 목장 안의 백성들을 모두 이주시켜 강화도 전체를 목장화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조정 관료들은 세종의 방안을 지지하는 사민론과 목장에 담을 쌓아 백성들을 머물게 하자는 축장론으로 나뉘어¹⁶⁾ 6년간 다섯 차례 대립하였다.

첫 번째 논의는 세종 9년 8월 경기 감사가 세종에게 목장에 담장을 쌓을 군사의 숫자와 기일에 대해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 세종은 일전에 판부사 최윤덕이 “강화도는 물과 풀이 많아 말을 방목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의 백성들을 다른 고을로 옮겨야 한다”는 사민론을 앞세워 강화도 전 섬의 목장화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판서 성달생이 강화부의 입지조건이 말을 목축하는데 유리하지만, 전지(田地)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담장을 쌓는다면, 굳이 섬 안의 백성들을 이사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가 성달생이 주장한 축장론이 옳다고 찬동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마정은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임을 명분으로 추수가 끝나는 즉시 백성들을 이사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런데 세종이 사민론을 관철시키는 데 두 가지 난제가 등장했다. 하나는 우의정 맹사성(孟思誠)과 판서 허조(許租)가 강화도는 바다의 요해지로서 장차 왜구 등의 침입에 대비할 것을 역설하면서 축장론을 지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사철에 담장을 쌓으려고 군사 1천7백

15) 『世宗實錄』 卷 37, 世宗 9年 8月 12日(丁卯).

16) 『世宗實錄』 卷 37, 世宗 9年 8月 26日(辛巳).

명을 동원한다면, 씨뿌리는 시기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세종은 강화도 민 3백호를 강제로 옮겨려고 하였으나, 관료들과의 반대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호군 곽정(郭貞)을 강화부에 보내 다시 살펴도록 하는 선에서 백성들의 이사를 미루었다.¹⁷⁾

두 번째 논의는 세종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마목장의 확장 문제를 동왕 14년(1432) 2월 15일 신료들과 정사를 보면서 제기하였다. 이때 세종은 강화도에 마목장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왕인 태종께서 제주 말들을 강화도로 옮겨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그러나 사실은 명나라가 언제 제주목장을 이전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껴서 강화도 목장을 서둘러 완성하려고 하였다.

세종은 일전에 성달생이 강화도의 입지 조건을 조사한 후 말 1만여 필을 기를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백성의 이사를 대신들과 의논하였다. 그런데 대신들이 모두 실행할 수 없다고 하자, 판사 고득중을 다시 강화도에 보내서 조사한 결과 말 1백여 필만 방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세종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말하는 관료들을 보고, 그들을 크게 불신하게 되었다.

세종은 “내가 사민론을 생각한 것이 8년이나 되며, 백성을 옮겨주는 것은 한때의 폐해가 되겠지만, 말을 방목하는 것은 만대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을 사역시켜 담장을 쌓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신을 강화도에 보내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¹⁸⁾ 세종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동왕 9년에 있었던 사민론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서 볼 수가 있겠다.

세 번째 논의는 세종 14년(1432) 3월 17일, 최윤덕(崔閔德)과 신상(申尙)이 강화부의 목장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겨울이 오면 곡초(穀草)와 마구(馬廄)를 준비해야 하므로 마장을 확장하지 말 것”을 주장한 내용이다.

17) 『世宗實錄』 卷 37, 世宗 9年 8月 26日(辛巳).

18) 『世宗實錄』 卷 55, 世宗 14年 2月 15日(甲辰).

이로써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을 동원하여 마장을 쌓고자 했던 세종의 생각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 동년 3월 19일 예조 판서 신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강화부가 목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하문함으로써 네 번째 논의가 시작되었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가) 임금이 예조 판서 신상에게 말하기를, “태종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강화의 목장은 물과 목초가 다 풍족하여 제주와 다를 것이 없다.’하셨다. 경이 가서 살펴보았으니, 그 물과 목초의 많고 적음과 지형의 편리함과 불편함이 어떠하던가.”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신이 최윤덕과 함께 3일 동안을 체류하면서 되풀이하여 살펴보았으나 전일에 들은 것과는 다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땅이 경작할 수 있는 까닭으로 나는 말을 방목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말에 대한 정사는 군국의 큰 일입니다. 만약 목장으로 적당하다면, 비록 몇 리 되는 땅을 버린들 어찌 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화는 경도와 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사복시의 관리들이 왕래하면서 살펴보기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본 바로는 물과 목초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하였다.¹⁹⁾

나) 임금이 또 말하기를, “정연의 말에, ‘강화 목장에 들어 놓아 기르는 말은 본래 1천 7백여 필이었으나, 지난 해와 올 해에 죽은 말이 거의 60필이나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매년 겨울철에 들거든 마땅히 목장 밖에 내어 놓아 혹은 버뿌리를 먹게 하고, 혹은 보리뿌리를 먹게 하여 늘 배부르게 하면, 죽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이 의견이 어떠하냐.”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목장 밖으로 흩어 놓아 보리밭을 짓밟고 물어 뜯게 한다면 민원이 적지 않을 것이오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목장에 놓아 기르는 수효를 줄이고, 혹은 가까운 고을로 나누어 주어서 기르게 하든지, 혹은 군관들에게 내려 주게 하옵소서.”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자.”하였다.²⁰⁾

19) 『世宗實錄』卷 55, 世宗 14年 3月 19日(戊寅) “上謂禮曹判書申商曰 太宗嘗言 江華牧場, 水草俱足, 無異濟州, 卿今已往審, 其水草豐耗、地刑便否何如, 商對曰, 臣與崔閔德留三日, 反覆看審, 異於前聞, 上曰, 其地可耕, 故予以放馬爲未便, 商曰, 馬政, 軍國大事, 若宜牧場, 則雖捐數里之地, 豈足爲害, 況江華距京都不遠, 司僕官吏往來考察爲, 然以臣所見, 水草則不可謂之美矣.”

위의 가)는 강화부에 다녀온 신상이 강화도는 물과 목초가 적어서 말을 기르기에 적당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수도 한양과 거리가 가까워 관리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는 중신들이 강화도 마목장의 말들이 겨울을 지나면서 죽게 됨으로 그 말들을 민간에 나누어 기르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가), 나)를 종합해 볼 때 세종이 강화도가 말을 기르는 입지조건으로 보면, 제주보다 낫다는 태종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까지 사민론에 의한 강화도 마목장 확장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중신들이 월동문제와 관련해 반대함으로써, 세종이 주장했던 강화도 마목장 확장이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가)에서 세종이 강화도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므로 말을 방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틀 전에 사민론의 입장에서 강화 마목장을 확장하려고 주장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신상도 강화도가 물과 목초는 좋지 않지만, 서울과 가까워 관리하기가 편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세종의 마목장 확장을 적극 반대하던 주장과는 달라진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세종의 이러한 심경 변화는 강화도 본섬의 마목장 확장을 포기한 대신 강화도 부속섬에 마목장을 설치하려고 구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사료 나)는 4차 논의가 있었던 7개월 후, 세종 14년(1432) 10월 12일 세종이 황희 등 대신을 불러 5차 논의를 시도한 내용이다. 세종은 정연(鄭淵)이 겨울에는 풀이 없어서 말이 죽었는데, 겨울동안만 담장 밖에서 방목한다면, 말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민론에 의한 마목장의 확장을 거듭 촉구했다. 사실 정연의 이러한 보고는 앞서 최윤덕과 신상이 월동문제로 반대한 것의 해결책이라는

20) 『世宗實錄』卷 58, 世宗 14年 10月 12日(丁酉) “上又曰, 鄭淵言, 江華牧場入放之馬, 本一千七百餘匹, 去今年死者幾至六十四, 是無他, 冬月無所食而然也, 每當冬月, 宜放場外, 或食稻根, 或食麥根, 使之常飽, 則不至於死, 此議何如, 僉曰, 散放場外, 踐嚼粟麥, 則民怨不小, 臣等以爲宜減入放之數, 或分養近郡, 或分賜軍官, 上曰, 將更議定.”

점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대신들은 목장 밖에서 말을 방목할 경우, 보리밭을 망치는 등 민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말을 민간에 나누어주자고 함으로써, 세종이 주장한 강화도 본섬의 목장화 정책은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세조는 즉위한 직후에 강화도 본섬 마목장의 운영상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 다음, 동왕 2년(1456)에 진강목장, 길상목장, 중목장(中場)을 하나로 통합 정비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강화부 마목장의 운영상의 문제를 경기우도 점마별감 조청노(趙淸老)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기우도 점마별감 조청노가 아뢰기를, “강화부의 진강·중장·길상의 세 목장은 연하여 설치한데다 각각 목책을 설치하여 한격하게 하니, 해마다 공역이 그치지 아니하고 말도 또한 경계를 넘어 달아나서 서로 혼동되어 목자가 분별하기 어려워 쟁송하기에 이르니, 청컨대 세 목장을 합하여 하나로 하소서.” 하니, 명하여 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병조에서 계본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²¹⁾

위 사료는 세조가 세 목장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 목책 설치로 인한 공역(功役)의 폐단과 말이 경계를 넘어 달아난 문제로 목자간의 대립을 해소하는 등 운영체제의 발전을 이룩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위 사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세 목장을 통합한 목장의 명칭은 진강목장이다. 그리고 세조는 동왕 3년(1457)에 마니산 서쪽 장곶(長串) 일대에 북일목장(北一場)을 설치하였다.²²⁾ 따라서 세조의 이와 같은 마목장 통합정책에 따라 세조 이후 본섬의 마목장은 진강목장과 북일목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21) 『世祖實錄』卷 3, 世祖 2年 2月 10日(己酉) “京畿右道點馬別監趙淸老啓, 江華府鎮江, 中場吉祥三牧場連設, 各設木柵限隔, 逐年修治, 功役不息, 馬亦越逸相混, 牧子難別, 以致爭訟, 請合三場爲一, 命兵曹議之, 兵曹請依啓本施行, 從之.”

22) 북일목장의 설치 연대는 전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世祖實錄』卷 3, 世祖 3年 9月 7日(戊辰)條에 목장의 명칭이 처음 전한다.

3. 강화도 부속섬의 마목장 설치와 胡馬 생산

세종은 목장 내의 도민 300호를 이주시키려고 했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본섬 전체의 목장화 정책은 중지되었다. 따라서 세종은 부속섬에 마목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확인되는 강화도 부속섬 마목장은 매음도목장(煤音島場), 신도목장(信島場), 장봉도목장(長烽島場)이 있고, 『세종실록』에서 확인되는 부속섬 마목장은 주문도목장(注文島場)²³⁾, 보음도목장(浦音島場)²⁴⁾, 위도목장(位島場)²⁵⁾이 있다. 이 중에 매음도목장은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므로 실제로 세종대 설치된 부속섬 마목장은 다섯 개가 되는 셈이다. 한편 성종대 설치된 부속섬 마목장은 미법도목장(彌法島場)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1, 강화도호부조에서 확인된다. 여기서는 강화도 부속섬의 마목장 설치와 이곳에서 생산된 호마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강화도 부속섬 마목장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총 16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마목장의 치폐가 수시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실제 운영된 마목장 수는 16개보다 적었다.²⁶⁾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강화도 본섬 마목장의 치폐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겼지만, 부속섬 마목장의 치폐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그 명칭이 처음 확인된 시점을 설치 연대로 본다면, 세종대 6개, 성종대 1개, 선조대 1개, 숙종대 1개, 영조대 5개, 고종대 2개가 된다. 다음의 사료가 각 목장의 연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3) 『世宗實錄』 卷 20, 世宗 5年 5月 21日(庚子).

24) 『世宗實錄』 卷 66, 世宗 16年 10月 14日(丁巳); 『世宗實錄』 卷 74, 世宗 18年 7月 25日(戊午).

25) 『世宗實錄』 卷 74, 世宗 18年 7月 25日(戊午).

26) 성종 이후 새로 설치한 마목장은 선조대 거음도목장(居乙島場), 숙종대 송가도목장(松家島場), 영조대에 금음북도목장(今音北島場), 시도목장(矢島場), 석모노도목장(席毛老島場), 말도목장(栗島場), 서검도목장(西檢島場)을 설치하였고, 고종대에는 동검도목장(東檢島場), 모도목장(茅島場)을 설치하였다.

- 가) 강화부의 서쪽 수로 2리에 매도(옛날 구음도)가 있는데, 둘레는 60리며, 국가의 말 3백27필을 방목한다. 목자 7호, 수군 16호를 들여보내 소금을 구워서 살게 했다.²⁷⁾
- 나) 강화부 동쪽 60리에 신도가 있다. 둘레는 30리며, 국가의 말 30필을 방목한다.²⁸⁾
- 다) 강화부 남쪽 30리에 장봉도가 있다. 둘레가 40리고, 너비는 5리며, 소를 방목하는데, 통진현 에서 관장한다.²⁹⁾
- 라) 송가도는 교동현 남쪽 수로 5리에 있다. 동서가 2리고, 남북이 1리 반이며, 개간한 땅 4결이 있다. 목자 2호가 살며, 조수가 물러가면, 매도의 목마가 스스로 왕래한다.³⁰⁾
- 마) 강화부 서쪽 30리에 보음도가 있는데, 둘레는 40리며, 밭 106결이 있다. 그런데 우도 수군영의 밭이므로 교동의 수군 8호가 들어가 산다. 옆에 작은 섬이 있는데, 길이가 5리고, 너비는 2리며, 밭 5결이 있다. 교동의 수군 4호가 들어가 산다.³¹⁾
- 바) 강화부 서쪽 수로 7리에 주문도가 있는데, 둘레가 30리다.³²⁾

위의 가)는 부속섬 매음도목장에 대한 사료다. 섬 둘레가 60리의 목장으로 말 생산에 종사하는 목자의 수는 7호이며, 국마의 숫자가 3백 27필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신도목장의 섬 둘레가 30리고, 국마 숫자가 30필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의 장봉도목장은 섬의 둘레가 40리로 소를 키우는 목장인데, 통진현에서 관장했다는 내용이다. 라)의 송가도목장(松家島場)은 섬의 둘레가 3리 반 정도의 작은

27) 『世宗實錄』地理志, 卷 148, 江華都護府, “府西水路二里有煤島, 古之仇音島, 周回六十里, 放國馬三百二十七匹, 牧子七戶, 水軍十六戶入居.”

28) 『世宗實錄』地理志, 卷 148, 江華都護府, “東六十里有信島, 周回三十里, 放國馬三十六匹.”

29) 『世宗實錄』地理志, 卷 148, 江華都護府, “南三十里有長烽島, 長四十里, 廣五里, 牛隻入放, 通津縣.”

30) 『世宗實錄』地理志, 卷 148, 富平都護府, 喬桐縣, “松家島在縣南, 水路五里, 東西二里, 南北一里半, 有墾田四結, 牧子二戶居, 潮退則煤島牧馬, 自相往來.”

31) 『世宗實錄』地理志, 卷 148, 江華都護府, “西水路三十餘里有甫音島, 周回四十里, 麻田百六結, 右道水軍營田喬桐水軍八戶入居, 傍有小島, 長五里, 廣二里, 有田單五結, 喬桐水軍四戶入居.”

32) 『世宗實錄』地理志, 卷 148, 江華都護府, “西水路七里有注文島, 周回三十里.”

목장인데, 목자는 2호가 상주하며, 조수가 물러가면 매음도 목마(牧馬)가 왕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의 보음도목장은 섬 둘레가 40리로, 교동의 수군 8호가 들어가 살고 있다는 내용이고, 마)의 주문도목장은 섬 둘레가 30리였다는 내용이다.

〈표 1〉 강화도 부속섬의 마목장 명칭

번호	전 거	연대	목 장 명	개수
1	『세종실록지리지』 권 148	세종	매음도장, 신도장, 장봉도장 ³³⁾ , 주문도장, 보음도장, 위도장	6개
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2	성종	미법도장	1개
3	『선조실록』 권 98	선조	거울도장	1개
4	『숙종실록』 권 39	숙종	송가도장 ³⁴⁾	1개
5	『대동지지』 권 2	영조	금음북도장, 시도장, 석모노도장, 말도장, 서검도장	5개
6	『대동지지』 권 2	고종	동검도장, 모도장.	2개

부속섬 목장 규모는 매음도목장이 제일 넓고, 다음은 장봉도목장³⁵⁾, 보음도목장, 신도목장, 주문도목장, 송가도목장 순위였으며, 물과 풀은 매음도목장, 장봉도목장, 주문도목장이 비교적 풍부하였다. 보음도는 바닷길이 멀었지만, 풀은 무성하였다.³⁶⁾ 그러나 그 밖의 섬들은 『강도지(江都誌)』에서 지적한 것처럼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물과 풀이 넉넉하지 못했다.

매음도목장은 고려시대에 설치된 목장이다. 그런데 고려 말 강음목장(江陰場, 고려 초 10대 목장 중 하나임)을 혁파하자, 공민왕 11년(1362) 밀직제학 백문보(白文寶)가 건의하여 그 말을 이곳으로 옮겼다. 매음도

33) 『世宗實錄』 卷 74, 世宗 18年 7月 25日(戊午).

34) 『肅宗實錄』 卷 39, 肅宗 30年 7月 20日(戊午).

35) 『靑丘圖』 16층, 長烽島 “周二十五里 土甚膏沃.”

36) 『成宗實錄』 卷 238, 成宗 21年 3月 27日(己卯).

목장은 목자 28인을 두고 각각 토지를 주어 목장을 지키게 하였다. 사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말이 번식하여 일찍이 동국의 기북(冀北)이라고 칭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진강목장 다음으로 많은 준마를 산출했는데, 고종대에 목장을 폐지하였다.³⁷⁾

매음도는 교동과의 거리가 불과 몇 리 정도에 불과했으므로 강도(江都) 사람과 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할 수 있었으며, 그 섬은 매우 넓어 소금을 만드는 사람과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³⁸⁾ 특히 매음도목장, 송가도목장, 금음북도목장(今音北島場), 석모노도목장(席毛老島場) 4개는 서로 육지로 연결되어 왕래하는 말을 분간할 수 없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서 매음도, 송가도, 금음북도, 석모노도는 원래 독립된 섬이었으나, 상류의 예성강, 임진강, 한강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섬 사이에 퇴적되어 서로 갯벌(육지)로 이어졌다. 따라서 간만의 차에 따라 물이 들어오면, 4개의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한 개의 섬이 되었다.³⁹⁾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송가도는 조수가 물러가면 매음도 목마가 왕래한다고 하였고, 숙종 30년(1704)에는 송가도목장을 매음도목장으로 혼동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⁴⁰⁾ 영조 35년(1759)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매음도와 석모노도가 육지로 10리에 연결되어 말을 방목한다.”고 하였고, 순조 34년(1834)에 편찬된 『청구도(靑丘圖)』에서는 “송가도, 석모노도, 금음북도 사이를 ‘연륙(連陸)’ 즉, 육지로 연결되었다.”고 표시하였다. 현재는 4개의 섬 사이에 제방을 쌓아서 하나의 섬인 석모도가 되었다.

37) 朴憲用 撰, 『江都誌』 牧場條, 한국인문과학원, 1989, 89쪽.

38) 『肅宗實錄』 卷 7, 肅宗 4年 10月 23日(庚寅).

39) 南都泳, 앞의 책, 1996, 446쪽.

40) 『肅宗實錄』 卷 39, 肅宗 30年 7月 20日(戊午).

〈그림 1〉 강화도 마목장 지도



장봉도목장은 섬의 둘레가 40리로 규모가 크고, 땅이 기름져서 풀이 많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본도에 설치된 유일한 소를 기르는 목장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지도서』 강화부지에서 진강목장, 북일목장, 주문도목장, 매음도목장 등 마목장에서 소를 길렀다는 기록을 볼 때 장봉도목장도 본래는 우목장이지만, 동시에 말을 길렀음을 알 수 있다. 장봉도목장은 본섬의 진강목장, 북일목장과 함께 국초에 설치하여 감목관을 배치할 정도로 핵심 목장이었다. 특히 세조대부터는 호마의 산지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면 강화도 부속섬 마목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말이 산출되었을까? 다음의 사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 가) 태조가 개국할 때에 탄 준마가 여덟이다. (중략) 일곱째는 사자황이라고 하는데, 강화부의 매도에서 낳고, 지리산에서 왜를 토평할 때 땀다.⁴¹⁾
- 나)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경기도 강화부 장봉도목장에서는 일찍부터 호마를 방목하여 따로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긴장한 망아지와 수말 46필이 있는데, 청컨대 5세 이하의 좋은 말 10필을 가려내어 서울로 보내고, 그 나머지 수말 36필 중에 북일·진강 두 목장에 각각 8필씩 보내어, 감목관으로 하여금 그 방목을 감독하게 하고, 털색과 이빨을 본사에 보고하여 마적에 등록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⁴²⁾
- 다) 사복사에서 아뢰기를, “강화부 신도에 들여보내어 방목하는 흑오명의 자웅마와 주둥이가 검고, 눈이 검고, 불[賢]이 검고, 굽[蹠]이 검고 결백한 자웅마는 그 수효가 적어서 번식이 많지 못하니, 두 빛깔의 말을 각도 목장에서 골라 내고, 또 경상도·전라도로 하여금 암수 아울러 각각 15필씩을, 충청도·경기도·평안도·함길도로 하여금 각각 10필씩을, 황해도·강원도로 하여금 각각 5필씩을 찾아서 올려 보내게 하여, 경기도 보음도에 방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평안도는 바치지 말게 하였다.⁴³⁾

위 사료 가)는 강화부 매음도목장에서 명마 사자황(獅子黃)이 산출되는데, 이성계가 타고 왜구를 격퇴했다는 내용이고, 나)는 강화부의 장봉도목장에서 호마를 번식시켜 전국의 목장에서 종마로 사용토록 했다는 내용이며, 다)는 강화부 신도목장에서는 흑오명(黑五明) 자웅마(雌雄馬)라고 부르는 명마를 산출하는데, 숫자가 적으므로 전국의 목장 가운데 그것과 같은 종류의 말을 찾아내어 강화부 보음도목장에서 방목했다는 내용이다. 가), 나), 다)를 종합해 볼 때 조선 초기 국가가

41) 『增補文獻備考』 권 125, 兵考 17, 馬政.

42) 『世祖實錄』 卷 9, 世祖 3年 9月 7日(戊辰), “司僕寺提調啓, 京畿江華長峰島牧場, 曾放胡馬, 別取孳息, 見在壯兒雄馬并四十六匹內, 請揀出五歲以下良馬十四匹送京, 其餘雄馬三十六匹, 北一鎮江兩牧場各送十八匹, 令監牧官監放, 毛齒報本司, 以錄馬籍, 從之.”

43) 『世宗實錄』 卷 66, 世宗 16年 10月 14日(丁巳), “司僕寺啓, 江華府信島入放, 黑五明雌雄馬及烏鶯烏眼烏腎烏蹄潔白雌雄馬, 其數尠少, 孳息不多, 兩色馬匹, 揀出於各道牧場, 又令慶尙·全羅道雌雄并各十五匹, 忠清京畿平安咸吉道各十四匹, 黃海江原道各五匹, 推覓上送, 放於京畿甫音島, 從之, 但令平安道勿進.”

강화도의 장봉도목장과 신도목장에서 호마를 별도로 산출하여 그 새끼 말을 나누어주지 않고 길렀는데, 세종과 세조가 호마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 새끼를 북일목장, 진강목장, 보음도목장에 종마(種馬)로 분배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음도에서 산출된 사자황은 고려 말 이성계의 팔준마(八駿馬)의 하나가 되어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할 때 큰 공을 세웠다.⁴⁴⁾

호마는 서역마(西域馬)와 몽고마(蒙古馬) 및 달단마(韃靼馬)로 구분하는데, 고려 말 원나라 세조가 제주도에 달단마를 들여오면서부터 호마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했다.⁴⁵⁾ 달단마는 몽고마 계통의 호마인데, 거란의 기북마가 그 조상이다. 거란이 멸망한 후 몽고족의 후신 달단(韃靼)이 등장하면서 기북마를 달단마라고 하였다. 따라서 달단마는 요동과 두만강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성계가 탔던 팔준마는 달단마의 혈통이라고 하겠다.

조선 초기 관료들은 호마 조달에 힘썼지만, 명나라가 해마다 1만 필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호마의 수요가 크게 부족했다. 따라서 국가는 북관개시를 통해 달단마를 수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해 태종과 세종, 세조가 강화도 본섬의 진강목장, 북일목장과 부속섬의 매음도목장, 장봉도목장, 신도목장, 보음도목장에서 호마를 방목하였다. 한편 국가는 호마의 증산을 위해 마목장에 감목관을 파견하고, 목자를 세습시키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44) 『龍飛御天歌』 8章, 70章 注.

45) 『成宗實錄』 卷 281, 成宗 24年 8月 5日(丁卯).

4.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와 戰馬 生産의 감축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는 성종대 이후 정치·사회경제·군사적 제반 질서가 붕괴되면서 나타났으며, 양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종대부터 마목장 안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군량을 생산한 것도 마목장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

강화도 마목장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다음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두 번의 큰 전란으로 인해 농지가 황폐된 상황에서 유민들이 강화도로 대거 유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금의 침공을 양서(兩西)에서 방어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강도와 남한산성을 정비하고 수도권을 확보하여 지구전을 전개한다는 수도방위론이다. 요컨대 외침에 대처하여 강화도 방어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진보(鎭堡)를 설치해야 하는데,⁴⁶⁾ 이때 국가는 농민들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양란 이후 강화도의 인구증가와 후금이 침입할 때 국왕을 강도로 옮긴다는 수도방위계획은 강화도 마목장을 폐지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 같은 관점에서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 문제를 전마의 감축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성종과 연산군 및 중종의 치세가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이다. 성종대에 마목장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처음 제기되었고, 중종대 말에는 마목장을 축소 내지는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되었다. 다음의 사료가 그러한 사실을 설명한다.

가) 경기 관찰사 성건이 강화 보음도의 지형을 그려서 올리며 아뢰기를,
“(중략) 보음도는 땅이 기름져서 5, 6백 석을 심을 만하니, 청컨대 목장을 다른 섬으로 옮기고 월곳이 당령 선군의 반을 나누어서 갈고 가꾸도록 하여 국용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46) 이흥두, 「병자호란 전후 江都의 鎭堡설치와 關防체계의 확립」, 『인천학연구』 9, 2008.

“성건의 말을 사복시에 자세히 유시하여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하였
다.⁴⁷⁾

나) 근래 태평 시대의 타성에 빠져서 말에 관한 일을 너무 등한히 하여 목장을 옮기거나 폐지하여 죽은 말이 많습니다. 마정의 허술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강화는 목장에 알맞은 곳으로 토질이 비옥하고 풀이 풍부하다고 이름이 나서 세력있는 자들이 차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폐조의 혼란스럽던 때 사람들에게 절수해 주었으나 정국 초에 곧바로 옛날대로 되돌렸으니 뜻 둔 데가 있었습니다.⁴⁸⁾

위 사료 가)는 경기 관찰사 성건(成健)이 강화도 부속섬 보음도(浦音島)의 지형을 성종에게 올리면서 보음도 마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둔전을 설치토록 건의한 내용이다. 나)는 중종이 즉위 초에 세력가들에게 넘어간 강화도 마목장을 국유화했지만, 말년에 또 다시 목장을 경작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가), 나)를 종합해 볼 때 성종대부터 오랜 태평이 지속되어 마목장을 경작지로 전환하였고, 연산군대에는 정치기강이 무너져 마목장이 권세가의 사유지가 되었으며, 중종이 즉위한 초기에는 마목장을 복구했지만, 말기에는 마목장의 경작지 전환을 막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료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종과 경기 관찰사 성건은 보음도 마목장을 폐지하고 둔전을 개간하자는 것에 찬동한 반면, 사복시는 마목장 폐지를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은 동왕 18년(1487) 1월 26일 성건의 건의를 접하고, 사복시정 강귀손(姜龜孫)을 강화도에 보내 사실 관계를 살피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성종이 사복시를 참여시킨 것은 마목장 폐지를 위한 명분 쌓기의 한

47) 『成宗實錄』 卷 199, 成宗 18年 1月 26日(丁卯), “京畿觀察使成健, 圖上江華浦音島地形以啓曰, (中略) 浦音島亦膏腴, 可種五六百頃, 請移其牧場于他島, 分月串當領船軍之半耕治, 以補國用何如.” 傳于承政院曰, “其以健言, 詳諭司僕寺議啓.”

48) 『中宗實錄』 卷 94, 中宗 36年 1月 17日(甲辰), “近來狃於昇平, 慢忽馬政, 或移場或割場, 馬多耗斃, 馬改虛跡, 無如今時之甚, 誠非細慮, 江華牧馬之地, 擅名沃饒, 豪強之家, 窺占已久, 在廢朝昏亂之時, 許人折受, 靖國初, 旋即仍舊, 其意有在.”

수순으로 이해된다.

동년(1487) 2월 19일 시강원 특진관 김승경(金升卿)은 중대한 문제를 사복시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사복시 제조, 호조 당상관, 경기 감사를 함께 보내 살피도록 하자고 건의하자, 성종이 이를 받아들였다.⁴⁹⁾ 그리고 동년 3월 4일 보음도에 다녀온 호조판서 이덕양(李德良)과 경기 관찰사 성건이 보음도 둔전 배치도를 그려 올리면서 “보음도의 둔전은 월곶의 선군(船軍)으로는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⁵⁰⁾고 말했는데, 성종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사복시 제조 윤호(尹壕)는 동년(1487) 4월 25일 “강화도 보음도는 바다 가운데 섬인데다가 경작할만한 땅도 많지 않는데, 호조에서 둔전으로 경작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목장을 개간하게 될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마정이 실패할 듯하니, 경작을 허락하지 말도록”⁵¹⁾ 간청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건이 동년(1487) 9월 15일 대사헌이 되면서 “강화도는 목장으로 긴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이 기름지니, 둔전으로 개간해야 한다”⁵²⁾고 건의하자, 성종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보음도 목장을 폐지하고 둔전이 설치되었다.

성종대에 이르러 권세가가 목장을 사유화하는 현상은 이 시기에 양반지배층의 사적 토지 소유에 기초한 농장의 확대와 맥락을 같이 한다.⁵³⁾ 권세가의 농장 사유화는 연산군과 중종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목장 폐지의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목장 폐지는 전마의 숫자를 감소시켜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임진왜란 초기전투에서 패배한 직접적 원인이다.

임진왜란시기에 전국의 대부분 마목장이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49) 『成宗實錄』 卷 200, 成宗 18年 2月 19日(己丑).

50) 『成宗實錄』 卷 201, 成宗 18年 3月 4日(甲辰).

51) 『成宗實錄』 卷 202, 成宗 18年 4月 25日(甲午).

52) 『成宗實錄』 卷 207, 成宗 18年 9月 15日(辛亥).

53) 李弘斗, 『朝鮮時代 身分變動研究』, 혜안, 1999, 56쪽.

강화도 마목장은 유지되었다. 특히 선조 26년(1593) 강화도 마목장이 섬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한 상황에서 비변사 대신들이 둔전의 설치를 건의하였고, 선조가 이에 동의함으로써⁵⁴⁾ 진강목장 둔전이 설치되었다. 한편 선조 28년 사간원에서 강화도를 보장으로 삼기 위해서는 곡식도 심고 군사도 훈련시키는 둔전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 마목장을 폐지토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국가의 마목장을 사사롭게 개인들이 경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⁵⁵⁾

그러면 선조가 강화도 마목장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남쪽의 마목장 중 절반이 적의 수중에 넘어갔는데, 만약 적이 남쪽의 목장 모두를 소유하고, 제주의 선로가 막힌다면, 강화도의 진강목장·신도목장·거을도목장(居乙島場)·미법도목장·장봉도목장·북일목장·매음도목장·주문도목장이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다.⁵⁶⁾ 따라서 선조 당대에는 목장을 폐지하여 그것을 경작지로 개간하는 일은 없었다.

강화도 목장을 경작지로 전환하려는 현상은 광해군대에 와서 더욱 확대되었다. 그것은 마목장도 중요하지만, 백성을 길러 국가의 근본을 보존해야 하고, 후금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사강국이 됨으로써 강도를 수도의 보장”으로 삼는 수도방위론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 경험으로 볼 때 강화도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조건이 식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마목장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목장을 폐지하는 문제는 관료들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었다. 고위 관료들은 강화도가 믿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면 목장을 폐지하고 수백 필의 관마(官馬)도 버릴 수 있다고 한 반면, 말사육과 목장관리

54) 『宣祖實錄』 卷 46, 宣祖 26年 12月 16日(乙丑).

55) 『宣祖實錄』 卷 66, 宣祖 28年 8月 27日(丁卯).

56) 『宣祖實錄』 卷 98, 宣祖 31年 3月 24日(己酉).

임무였던 사복시⁵⁷⁾ 관원들은 마목장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니와 다음의 사료에서 그 이유를 뚜렷이 엿볼 수 있다.

비변사가, 지난번 경기 감사 심열의 장계가 사리에 맞다고 하여, 진강목장의 절반을 잘라 담장을 둘러쌓아 백성들에게 경작토록 허락하고, 그곳의 말들을 길상목장과 북일목장에 옮겨 방목하는 일을 본 사복시 제조들이 회동하여 처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중략) 진강목장은 물과 초지가 매우 좋아 예로부터 말들이 잘 번성하는 지역으로 알려졌고 준마가 많이 생산되었는데, 길상목장은 진강목장의 뒤쪽에 있는데도 딱 막힌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진강목장의 절반을 나누어 경작지로 만들더라도 농사로 얻는 수익은 많지 않을 것이고, 만일 진강목장의 말들을 길상목장에 옮겨 방목한다면, 서로 뒤섞여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북일목장은 마니산 밑 외진 곳에 있고 물과 초지도 좋지 못해 전부터 말이 번식되지 않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다른 목장의 말을 옮겨 방목한다면, 모두 손상될 것입니다. (중략) 신들은 본 목장의 형편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가벼이 폐지해서는 안 되며, 또 백성들에게 경작하게 허락한다는 것이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 시행토록 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⁵⁸⁾

57) 사복시는 병조에 소속된 정3품 아문으로 말 사육, 전국의 목장관리, 왕의 가마관리, 목자호보 등의 실무를 관장하고 집행했다. 제조 2명과 사복시의 장으로서 정3품의 정(正) 1명을 임명하고, 그 밑에 종3품의 부정(副正) 1명, 종4품의 첨정(僉正), 종5품의 판관(判官) 1명, 종6품의 주부(主簿) 2명을 두었다. 잡직(雜職)의 마의(馬醫) 10명을 두었는데, 종6품의 안기(安驥) 1명, 종7품의 조기(調驥) 1명, 종8품의 이기(理驥) 2명, 종9품의 보기(保驥) 2명으로 구성했다. 이속(吏屬)은 서리(書吏) 15명, 제원(諸員) 600명, 차비노(差備奴) 14명, 근수노(根隨奴) 8명을 배치하였다. 『경국대전』 권1, 이진, 경관직·잡직·경아전 사복시조 및 권4, 병진, 경아전 사복시조, 그리고 권5, 형진, 제사차비노·근수노정액, 사복시조.

58) 『光海君日記』 卷 10, 光海君 卽位年 11月 9日(壬辰), “司僕寺啓曰, 備邊司頃因京畿監司沈悅狀啓事宜, 欲將鎭江場截半限築, 許民耕食, 而以其牧馬移放吉祥、北一兩場, 會同本司提調處置事, 啓下移文, (中略) 鎭江爲場, 水草甚好, 古稱畜馬繁庶之地, 逸才駿足, 亦多產出, 而吉祥在其後, 隔絕而不相通者, 其意有在, 今若橫截鎭江之半而已, 則耕種蒙利, 不至大段, 若以鎭江之馬, 沒數移放於吉祥, 則新舊雜處, 必有狹窄難容之患, 至於北一, 則僻在摩尼山底, 水草不美自前馬不蕃息, 衆所共知, 決難移放他場之馬, 以致一併損傷也, (中略) 臣等雖未及目觀本場形勢, 而亦知其不可輕廢, 且念許民耕食之爲虛套, 請令備邊司更議施行, 傳曰, “允”.

위 사료는 경기감사 심열(沈悅)이 진강목장의 절반을 떼어내 전지로 전환하고, 진강목장의 말들은 이웃의 길상목장과 북일목장에 옮겨 방목 하자는 장계를 올리자, 비변사는 이에 찬동한 반면, 사복시 제조들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강화도 본섬의 진강목장, 길상목장, 북일목장은 말을 사육하는 환경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목장의 넓이와 토질의 비옥도는 진강목장이 최상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경작지 부족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 강화도 진강목장을 축소하여 거주민에게 토지를 분급한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민론의 이면에는 토지를 사유화하려는 고위 관료들의 탐욕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료 중 “진강장의 절반을 나누어 경작지로 만들더라도 농사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지 않을 것이다”고 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실제로 진강목장의 말들을 두 마목장의 말과 합쳤을 경우, 말들이 서로 물고 싸워서 죽는 말이 많았을 것이다. 아무튼 진강목장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농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광해군이 사복시의 견해에 찬동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조대에는 정묘·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마목장을 폐지하고 그곳을 전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더욱 거세졌다. 특히 인조 5년(1627) 4월 정묘호란 직전에 비변사가 “섬 안에는 마목장이 반을 차지함으로 병란을 피해서 강화도로 들어올 서울의 남녀, 인근 고을의 백성들, 왕실의 어가와 백관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 마목장을 폐지하지 않으면, 보장의 계획이 허사로 돌아간다.”고 하였지만, 인조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한편 효종대에는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전국의 목장이 황폐했지만, 진강목장을 개축함으로써 별대총(伐大驄)이라는 진강의 용마를 산출하였다.⁵⁹⁾ 그러나 현종 6년(1665)에는 서필원(徐必遠)이 섬의 마목장을

59) 『增補文獻備考』 卷 125, 兵考 17, 馬政.

혁파하여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고, 60) 동왕 12년(1671) 서필원이 다시 상소하여 매음도목장을 폐지하고 백성을 모아서 경작하기를 청했다. 61)

숙종 9년(1683)에는 강화 우수 조사석(趙師錫)이 강화도의 진강목장·주문도목장·장봉도목장은 모두 비옥한 땅인데, 마목장을 설치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였다. 효종이 진강장을 폐지하려다가 명마를 산출한다고 하여 다시 설치했지만, 지금은 노둔한 말들만 생산되기 때문에 목장을 옹고, 백성들에게 개간을 허락하도록 주청하였다.

그러나 사복시 제조 김수흥(金壽興)이 “효종께서 폐지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뜻이 있을 것”이라고 논계하여 조사석의 주장을 무산시켰다. 62) 그리고 동년(1683) 8월에는 강화 우수 서민서(徐敏敍)가 북일목장을 다른 곳으로 옹고 사람들을 불러들여 보장의 대계를 완성토록 주청하였다. 63) 그런데 숙종 30년 송가도목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호조판서 홍수현(洪受瀾)이 『동국여지승람』에 그 이름이 없다하여 반대하였지만, 국왕의 명으로 설치하여 사복시에 소속시켰다. 64)

숙종대 후반은 목장의 설치보다는 폐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특히 강화도 본섬의 진강목장과 북일목장은 2년의 간격을 두고 폐지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은 당시 두 마목장의 폐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민진원이 말하기를, “무자년에 우수 박권이 진강목장을 혁파하는 일을 진달하여 윤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사복시 낭청이 적간한 품목에서 목장 혁파는 어렵다고 말하므로, 박권이 또 치계하여 그 불가함을 힘써 변명하였으나,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하니, 임금이 이어에게 물었다.

60) 『顯宗改修實錄』 卷 13, 顯宗 6年 9月 28日(辛亥).

61) 『顯宗改修實錄』 卷 23, 顯宗 12年 2月 26日(戊申).

62) 『肅宗實錄』 卷 14, 肅宗 9年 1月 23日(乙丑).

63) 『肅宗實錄』 卷 14, 肅宗 9年 8月 3日(壬寅).

64) 『肅宗實錄』 卷 39, 肅宗 30年 7月 20日(戊午).

이여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사복시 제조를 지냈는데, 본시에서 이 목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개 효종조에 이를 복설했는데, 뜻한 바가 있어 다른 목장과는 다르므로 가볍게 혁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도를 보장처로 삼았기 때문에, 마목장은 비록 혁파하더라도 진강의 양마는 그 종자가 있어 토지와는 관계가 없으니, 수초가 풍요한 곳을 가려서 그 종마를 옮겨 둔다면 어느 곳인들 불가하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정탈한 바에 의거하여 마목장을 옮겨 설치하고, 백성들을 모아 농사짓고 살도록 분부하라.”고 하였다.⁶⁵⁾

- 나) 강화 우수 조태노가 북일목장은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치계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본부는 난리 이후에 민호가 2천여 호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거의 7천 호에 가까운데, 시기전은 겨우 3천여 결입니다. 진실로 먹을 것만 넉넉하면 백성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본토니 외토니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을 모집해 들이는 실효가 없다고 하여 다시 마목장으로 만들려 하는데, 단지 사세가 전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해와 경중에도 합당함을 잃는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케 하였다.⁶⁶⁾

위 사료 가)는 무자년(1708)에 강화 우수 박권(朴權)이 진강목장을 혁파할 것을 주청하여 숙종의 윤허를 받았는데, 당시 사복시 낭청이 적간한 품목에서 마목장 혁파를 반대함으로써 진강목장 혁파가 유보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강화 우수 조태노가 양란 이전에 2천호의 인구가 7천호로 증가한 바, 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일목장을 폐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진강목장의 혁파는 숙종 34년(1708)에 당시 강화 우수였던 박권이 농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혁파를 주청하여 숙종의 윤허를 받았지만,

65) 『肅宗實錄』卷 48, 肅宗 36年 6月 29日(癸亥), “鎮遠又曰: “戊子年留守朴權, 以鎮江牧場革罷事, 陳達蒙允, 其後司僕郎廳摘奸稟目, 言罷場重難, 權又馳啓, 力辨其不可, 至今未決, 上以問奮, 奮曰, 臣曾經司僕提調, 本寺最重此牧場, 蓋設立在孝廟朝, 而意有所在, 與他牧場有別, 故不可輕罷, 然既以江都爲緩急依歸之所, 牧場則雖罷, 鎮江良馬, 自有其種, 非係土地, 擇水草豐饒處, 移置其馬種, 何處不可乎 上曰 依當初定奪, 牧場移設, 募民耕食事, 分付.”

66) 『肅宗實錄』卷 52, 肅宗 38年 12月 6日(乙卯).

사복시 낭청의 반대로 목장 혁파가 유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⁷⁾ 따라서 숙종 36년(1710) 6월 29일에 강화 우수 민진원(閔鎭遠)이 그동안 사복시의 적간으로 폐지가 유보되었던 진강목장의 폐지를 또다시 주청하자, 숙종이 당시 사복시 제조였던 영의정 이여(李畬)에게 그때 반대했던 이유와 2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물었다.

이여는 2년 전 사복시는 전국의 마목장 중에서 진강목장을 가장 중요한 목장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효종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복설하였기 때문에 진강목장의 폐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강도를 보장으로 삼았으므로 수초가 많은 곳을 골라서 종마를 옮겨준다면 혁파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숙종은 결국 그가 신임하는 전 사복시 제조였으며, 현 영의정 이여의 말을 듣고, 진강목장을 폐지하되, 그곳의 말들을 다른 섬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진강목장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진강목장을 혁파한 땅은 서울의 세력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강화도 백성들은 소외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숙종은 “목마(牧馬)의 이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이롭게 하지 못해 한 번에 두 가지를 잃었다”⁶⁸⁾고 개탄하였다. 이후 국가는 강화도 백성들의 호구지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관료들의 정치논리에 따라 숙종 38년(1712) 5월 13일 북일목장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진강목장과 북일목장을 혁파한 명분은 민생의 구제였지만, 경성의 부재지주인 세력가들이 전지를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강화도 마목장은 숙종대에 진강목장과 북일목장이 폐지되었고, 고종대에는 부속섬의 매음도목장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부속섬의 나머지 목장들도 정조대에는 40~50필의 마목장으로 전락하였으며, 순조 11년까지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⁶⁹⁾

67) 『肅宗實錄』 卷 46, 肅宗 34年 12月 3日(乙巳).

68) 『肅宗實錄』 卷 51, 肅宗 38年 5月 13日(乙未).

69) 『純祖實錄』 卷 14, 純祖 11年 3月 30日(戊寅).

5.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강화도 마목장의 치폐와 전마의 생산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본섬과 부속섬에서 생산되는 호마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태종이 강화도에 마목장을 설치한 것은 명나라가 제주목장을 소유하려고 하자, 강화도에 제주말을 옮겨 조선의 독자적인 군마 양성체제를 확립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호란 이후 강도는 수도방위의 보장처가 됨으로써 강화도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해 점차 마목장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화도 본섬의 마목장 설치 문제를 사민론(徙民論)과 축장론(築墻論)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 태종은 제주목장에 대한 명나라의 내정간섭과 국가적 위기가 닥쳐올 경우, 제주말의 운송이 곤란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강화도에 마목장을 설치토록 하였다. 당시 제주목장의 준마 100여 필을 가져와 강화도 길상산에 방목했는데, 말을 방목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동왕 15년(1415) 1월에 들레 6만 7천여 척의 새로운 길상목장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세종은 동왕 7년(1425)에 진강목장을 건설하고, 동왕 9년에는 길상목장과 진강목장을 합쳐서 담을 쌓았다. 이때 세종은 강화도 전체를 목장화 하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조정 신료들은 세종의 방안을 지지하는 사민론과 목장에 담을 쌓아 백성들을 머물게 하자는 축장론으로 나뉘어 6년간 대립하였다. 세종은 사민론을 앞세워 강화도민 3백호를 옮겨 전 섬의 목장화를 관철시키려고 하였지만, 축장론을 주장한 관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세종은 강화도 부속섬에 마목장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세조는 길상목장, 진강목장, 중목장(中場) 등 세 목장을 진강목장으로 통합하고 마니산 서쪽에 북일목장을 설치함으로써 마목장 운영체제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다음으로 강화도 부속섬의 마목장 설치와 호마의 생산에 대한 내용이다.

사민론을 앞세운 세종의 강화도 본섬 전체의 목장화는 돌담을 쌓아 목축과 경작을 동시에 추구하는 축장론에 밀려 무산되었다. 이에 세종은 마목장을 부속섬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확인되는 부속섬 마목장은 매음도목장, 신도목장, 장봉도목장이 있다. 그리고 『세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섬 마목장은 주문도목장, 보음도목장, 위도목장이 있다. 이밖에 성종대에는 미법도목장, 숙종대에는 송가도목장이 설치되었다. 특히 조선 초기에 설치된 부속섬의 마목장 규모는 매음도목장이 제일 넓었고, 장봉도목장, 보음도목장, 신도목장, 주문도목장, 송가도목장의 순서였다. 물과 풀은 매음도목장, 장봉도목장, 주문도목장이 비교적 풍부하였다. 매음도목장, 송가도목장, 금음북도목장, 석모노도목장은 육지로 연결되어 왕래하는 말을 분간할 수 없었다. 본래 매음도, 송가도, 금음북도, 석모노도는 독립된 섬이었으나,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섬 사이에 퇴적되어 육지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간만의 차에 따라 물이 들어오면, 4개의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한 개의 섬이 되었다. 특히 장봉도목장은 감목관을 배치할 정도로 핵심 목장이었는데, 세조대부터는 호마의 산지로 널리 알려졌다.

끝으로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와 전마의 생산 감축을 수도방위론과 관련하여 고찰한 내용이다. 강화도 마목장의 폐지에 대한 문제는 성종대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데, 목장 내에 둔전을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정치기강이 무너진 연산군대에는 세력가들에게 목장을 하사함으로써 마정이 더욱 문란하였다. 특히 중종대 초기에는 개혁적인 마정을 실시했지만, 말년에는 또다시 마정이 문란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를 보장처로 삼기 위해서는 후금의 침공에 대처하여 요새지에 진보(鎭堡)를 설치하고 군사를 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려면 강화도 백성들에게 경작지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데, 국가는 경작지 확보를 위해 마목장을 혁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숙종 36년(1710)과

38년(1712)에는 진강목장과 북일목장을 차례로 폐지하고, 고종대에는 매음도목장을 폐지하였다.

[원고투고일: 2014. 10. 1, 심사수정일: 2014. 11. 20, 게재확정일: 2014. 11. 21]

주제어 : 제주목장, 태종, 전마, 길상목장, 세종, 진강목장, 장봉도목장, 호마, 숙종

<ABSTRACT>

The Deployment and Dismantlement of horses ranch and
the production of war horses in Ganghwa-do during the
period of Choseon

Lee, Hong-doo

Immediately after the founding of the Choseon Dynasty, the Ming Dynasty tried to acquire and own the ranches in Jeju Island. The breeding of war horses were assumed to be so difficult that the Emperor Taizong decided to move 100 superior stallions from the Jeju ranch to the uninhabited area of Ganghwa-do for grazing. Two years later, in the 15th year of Emperor Dong, the emperor constructed Gilsung Ranch with the circumference of 60 li(unit of distance, around 0.4km) in the year of 1415. In the seven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1425), Jingahng Ranch was built. In his ninth year(1417), Gilsung and Jingahng Ranch were combined and a wall fence were constructed around it. It was around the time when King Sejong was pushing for a policy to make the entire Ganghwa area a horses ranch. In spite of the King Sejong's decision, the government of Choseon was divided into two parts according to the theories. The first one is on how to make the people stay by building a fence around the ranch, the second one is the theory that supports the inside of King Sejong, he had been in conflict for six years. By integrating the three Corral Ranch West Mani mountain, King Sejo had made the development of Ma ranch management. Opposition Social Democratic theory of bureaucracy to claim the shrinkage length theory went blank, Sejong built a Ganghwa island including Emma ranch.

In addition to Susu-on Loading image, Shin Loading image, pine house Loading image, Ma ranch attached island lmaotokita Loading image. There are Ma ranch of the total 16 Sekikero such as Loading image Ranch was installed in Goryeo era prostitution. In particular, Mono Ranch was built during the Kyoro Dynasty. Jangbong Ranch produced Tarpan hors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mjin War), the nation's Ma Ranch were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army. However, the results of protecting the ranch in Ganghwa-do were that the war horses were contributed to drive back foreign armies.

If you want to occupy the ranch, Seryokuga was increasing in the period of king Jungjong and yanshan -kun. Most of Ma ranches across the country entered the water path of the Japanese army. At the time of turbulent Mizunoetatsu (Imjinwaeran) Choseon dynasty was able to repel the Japanese Yamato army by setting the defensive conditions by establishing ranch at Gwanghwa-do. Heyco looked after suspiciously, he had no choice but to grant land to the residents because it would suspicious to Heyco who had a fortress view of the Hanyang and Gangwa. Therefore the King Sukjing abolished the order for Jinjiang Ranch for the expansion of more cultivated land.

Key Words : the Jeju ranch, the King Taizong, war horses, Gilsung Ranch, King Sejong's, Jingahng Ranch, Jangbong Ranch, Tarpan horses, the King Sukjing